

통계청, 사우디 통계청과 국가통계발전을 위한 이행 약속서 체결

- 한-사우디 정상회담을 계기로 혁신적 통계기법 공유 및 기업지원 기반 마련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사우디 국민 방문을 계기로 10월 22일(현지시각) 사우디 리야드 야마마 궁(Al Yamamah Palace)에서 사우디 통계청(GASTAT)*과 양국의 '국가통계발전 도모를 위한 이행 프로그램 약속서'를 체결하였다.

* General Authority for Statistics

통계청은 2017년 사우디 통계청과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양자 통계협력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의 통계작성 정보통신(IT) 시스템, 등록센서스 등 선진적 통계작성기법을 공유하며 양국간 통계 교류를 지속해 왔다.

특히, 한국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 실시 경험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전수함으로써,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 인구센서스가 성공적으로 실시 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번 이행 프로그램 약속서는 2017년 체결한 업무협약에 ▲빅데이터 등 혁신적 통계작성 기법 공유와 ▲기업들의 해외활동 지원을 위한 통계자료 교환을 협력 분야에 추가하여 양기관의 협력을 확대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형일 청장은 이번 이행 프로그램 약속서 체결을 계기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한국의 최신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통계작성 경험을 적극 공유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이며”,

*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2016년 발표한 사우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계획

“더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활동에 필요한 인구, 가구, 소득 등 사우디아라비아의 세분화된 통계자료를 공유하여,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한-사우디아라비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과 같이, 앞으로 양 기관이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발전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계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하드 빈 압둘라 알도싸리(Dr. Fahad bin Abdullah Aldossari) 사우디 통계청장은 “사우디 통계청(GASTAT)이 통계선진국인 한국 통계청과 이행 프로그램 약정서를 체결하여 협력을 확대하게 된 것이 기쁘다”라며,

“향후 한국 통계청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한국의 최신 통계작성기법이 지속적으로 공유되면, 「사우디 비전 2030」의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우디 국가통계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김혜련 (042-481-2095)
		담당자	사무관	김미영 (042-481-2098)





- ▶ 한-사우디 양국 정상 임석하에 통계 분야 이행 프로그램 약정식을 10월 22일(현지시각) 체결한 후, 이형일 통계청장(왼쪽 두번째)은 사우디 리야드에서 파하드 알도싸리 사우디 통계청장과 양자면담을 10월 23일 실시하였다.



- ▶ 이형일 통계청장(왼쪽)은 사우디 리야드에서 파하드 알도싸리 사우디 통계청장과 10월 23일 양자면담을 실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